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1년도 제15호

서울특별시체육회 칼럼

공부 혹은 운동, 하나의 길 강요하는 사회

글 / 홍덕기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

기자칼럼 [김창금의 무회전 킷]

스포츠혁신위 권고 2년의 '이상'과 '현실'

글 / 김창금 한겨레 기자

『 도쿄올림픽 』

“올림픽 중단하라” 일본 이틀만에 19만명 서명

北, 올림픽에 이어 월드컵도 불참 통보...남북 스포츠교류 단절 우려

『 대한체육회 』

“폭행, 성추행 男 세팍타크로 감독 승인보류, 훈련비 지원 중단”

『 소년체전 』

“대타 종목별 대회도 조마조마”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TEL 02-2279-8999

공부 혹은 운동, 하나의 길 강요하는 사회

학생 선수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

모든 학생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학생 선수 역시 선수이기 전에 학생이기 때문에 예외일 수 없다.
하지만 현실은 학생 선수는 운동 과잉과 학습 결핍 속에 놓인 반면,
일반 학생은 학습 과잉과 운동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 학생 선수와 일반 학생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 장벽을 허물려면 학생 선수도
일반 학생처럼 일상적인 학교생활을 누려야 한다.
학생 선수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다.

글 홍덕기



학생 선수의 학습권 침해, 무엇이 문제인가?

2000년 5월,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장희진은 태릉선수촌에서 훈련하다가 기말시험을 치르러 학교에 갔다는 이유로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 사건은 학생 선수의 학습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왔다. 학생 선수의 학습권 침해 문제는 체육 특기자제도를 비롯한 '스포츠 강국' 패러다임에서 비롯되었다.

1972년에 도입되어 학교 성적이나 출결과 관계없이 경기 입상 실적만으로 상급학교 진학을 허용한 체육 특기자제도는 학생과 선수를 이분법적으로 구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습권 침해를 양산해냈다. 체육 특기자제도 도입 이후 50년이 지나는 동안 '스포츠 강국' 패러다임은 더욱 공고해졌다.

다음 장 계속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왜 필요한가?

운동선수가 운동만 잘하면 학습권은 존중받지 못해도 상관없을까? 혹자는 미술이나 음악 등 다른 분야와는 달리 유독 체육 분야에서만 왜 학습권을 강조하냐고 반문한다. 이는 체육 분야가 다른 분야와는 다른 특성을 띠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는 언제나 부상의 위험으로 중도 탈락 가능성이 높으며 선수로 성공할 확률이 매우 낮다. 설사 성공한다 해도 전성기가 길지 않으며 은퇴 시기가 상대적으로 빠르다.

또한 일반적으로 엘리트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운동 종목에 입문해 전문적인 지도를 받으며 '공부'와 '운동' 중 하나만 선택하기를 강요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누적된 학습 결손은 학업과 사회 적응 및 엘리트 선수 이외의 다른 진로로의 모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은퇴나 부상 이후 제2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민주 시민으로서 기초적인 학습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학습권은 단지 정규 수업을 잘 이수하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과 같은 좁은 의미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학습권은 성장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이 학교에 다니며 교육을 통해 인격적·지적·기능적 향상을 누릴 권리, 그리고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며 주체적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인권 감수성과 스포츠 리터러시

최저 학력제를 비롯한 그동안의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 대책은 학습권에 대한 좁은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나온 대책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인권 감수성'과 '스포츠 리터러시(Sports Literacy)'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인권 감수성이다. 인권 감수성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다양한 자극이나 사건에 대해 그것이 사소할지라도 인권적 요소를 발견해내고, 이를 삶에 적용하면서 인권적 시각을 견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려는 목표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서 인권을 느끼고, 생각하고, 고민하며 성찰할 수 있도록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인권 감수성의 향상은 훈련, 시합, 합숙 등의 상황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인지하고 이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인권 감수성 측면에서 학생이 학습할 권리는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받는 최소한의 장치다. 따라서 학습권은 경기 성적을 비롯한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

둘째, 스포츠 리터러시다. 스포츠 리터러시는 학생들이 다양한 스포츠에 참여해 몸에 대한 자기 조절력과 평생 운동 습관을 갖고 스포츠의 가치를 향유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스포츠 분야에서 교육해야 할 핵심 가치가 운동 기능 습득 및 향상의 극대화에만 있었다면, 이제는 '스포츠 그 자체를 즐길 권리'가 우선적인 교육의 목표로 제시되어야 한다.

인권 감수성 향상과 스포츠 리터러시가 스포츠 교육의 목적이 되면 학교 스포츠 지도자의 역할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 지도자의 역할은 단지 운동 기능 지도뿐 아니라, 인성 교육, 스포츠 문화의 전수자로서 운동부 활동의 교육적 기능을 복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신분이 불안정한 현재의 상황에서 지도자에게 학습권을 경기력에 우선해 강조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학습권 논의에서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재교육 문제를 같이 다뤄야 하는 이유다.

글을 쓴 **홍덕기**는 스포츠교육학 전공으로 미국 노던 아이오와대 교수를 거쳐, 현재는 경상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스포츠혁신위원회, 체육시민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등에서 활동하며 한국 스포츠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라톤을 좋아하며, 스포츠·교육·인권에 대해 관심 있다.

스포츠혁신위 권고 2년의 '이상'과 '현실'

7일이면 스포츠혁신위원회가 1차 권고안을 낸 지 꼭 2년 되는 날이다. 당시 스포츠혁신위는 한국 스포츠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제안을 7차례에 걸쳐 내놓았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스포츠혁신위의 권고안은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으로 평가해도, 절반의 성공 정도만 거뒀다고 볼 수 있다. 왜 그럴까?

스포츠혁신위가 엘리트 스포츠의 토대를 바꾸기 위해 가장 역점을 둔 것은 크게 선수 인권과 학습권 보장, 소년체전 폐지 등 3가지로 볼 수 있다. 클럽스포츠 활성화나 스포츠기본법 제정, 대한체육회와 올림픽위원회의 분리 등도 제시했지만 큰 방향만 설정했을 뿐 현안은 아니다.

이 가운데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1차 권고문의 핵심 내용이었던 스포츠윤리센터 설치의 지난해 8월 이뤄졌다. 하지만 출범 1년도 안 돼 파행을 겪고 있다. 대한체육회나 지방체육회 등의 클린스포츠센터 등을 폐지하고 하나의 중앙단체를 만들었으나 준비와 역량 부족만을 드러냈을 뿐이다. 예산과 인력 확충을 위해 백방으로 뛰며 문제점을 알린 초대 이사장이 사퇴라는 초강수를 두자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기 시작한 게 현실이다.

학생 선수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한 학기 중 주중대회의 주말대회 전환은 사실상 답보상태다. 대한체육회가 지난해 주중대회의 주말대회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종목별 신청을 받았지만, 이에 응한 종목단체는 세팍타크로 딱 하나뿐이었다. 축구나 권투의 경우 경기 뒤 일정 시간 휴식이 의무화된 상태에서 주말 대회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대부분 종목의 경우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가리는데 주말 이틀에 경기를 끝내기도 힘들다. 어렵게 주말 대회를 치른다고 해도, 이미 취업 마인드를 가진 고교 선수들 가운데 주중 수업보다는 훈련에 집중하는 경우도 있다.

소년체전 폐지 권고도 시행의 어려움이 있다. 초·중학교 선수들의 대회에서 초등학생 선수들을 떼어 지역별 축제형식의 대회를 벌이는 것은 팀수가 천차만별인 지자체별로 입장이 다르다. 고교선수들을 전국체전에서 떼어내 중·고교 선수들만의 학생축전을 만드는 것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2025년까지 시·도별 전국체전 개최 장소가 결정돼 있는 상황에서, 전국체전 출전자 수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고교 선수를 뺄 경우 대회 운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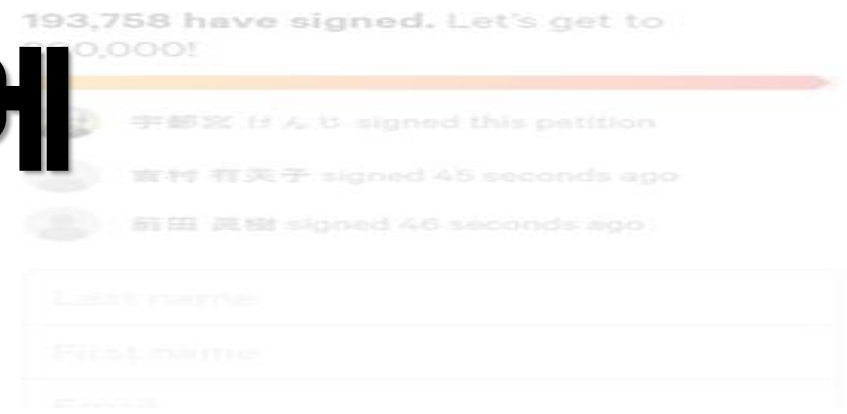
기존의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의 혁신이 단순히 문화체육관광부나 대한체육회만의 일이 아니고, 입시제도 등 한국 사회의 가장 민감한 부문과 연결돼 있는 것도 난점이다. 가령 주말대회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대회 수가 대폭 축소돼야 하지만, 성적 등 입시 자료가 필요한 선수들은 대회가 많을수록 좋다. 여기에 오랜 기간을 통해 형성된 엘리트 선수나 지도자, 학부모의 태도나 관성 등 문화적 장벽이 있다. 권고안 수행기관인 대한체육회가 종합체육대회 운영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곧 발주하기로 한 이유다.

애초 스포츠혁신위가 난관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눈높이를 높게 잡아야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가능하다고 '강공'으로 치달았다. 그런 측면에서는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고 하겠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만약 스포츠혁신위가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대한체육회를 처음부터 '카운터파트'로 인정했다면 어땠을까. 혁신위 구성에서부터 논의까지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했더라면...

혁신이란 거죽을 훌랑 벗긴 뒤 새로 태어나는 어려운 일이다. 그 작업을 국가를 통해 할 수밖에 없다면, 다양한 지혜를 모으고 동의를 얻어내는 협치의 정신이 필요하다. 선과 악을 구분해 한쪽을 적으로 돌리는 것은 이데올로기다. 스포츠혁신위의 권고안 2주기에 정책 선명성 못지 않게, 상대를 인정하는 포용의 정신을 생각해본다.

“올림픽 중단하라” 일본 이틀만에 19만명 서명... “무리” 벽보도



코로나19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면서 오는 7월23일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일본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올림픽 중단을 요구하는 서명엔 이틀 만에 19만명이 넘게 참여했고, 올림픽을 멈추라는 벽보를 붙인 병원도 등장했다.

우쓰노미야 겐지 전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은 지난 5일 낮부터 온라인에서 올림픽 중단을 요구하는 서명을 시작했는데 이틀 만인 7일 오전 19만3천여명이 참여했다. 우쓰노미야 변호사는 서명에 나선 이유를 밝히면서 “목숨과 삶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도쿄올림픽을 열 필요가 있느냐”며 “정부는 올림픽을 중단하고, 코로나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쓰노미야 변호사는 서명 용지를 이달 중순 도쿄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쿄의 한 병원은 건물 2층과 3층 창문에 “의료는 한계, 올림픽 그만!”, “이제 그만해, 올림픽 무리!”라는 벽보를 붙여 트위터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병원 원장은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올림픽 개최로 감염 확대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간호사와 의사를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을 알았다”며 “목소리를 낼 필요를 느꼈다”고 말했다.

도쿄의 한 의류업체는 도쿄올림픽 중단을 형상화 한 티셔츠를 만들어 팔고 있다. 도쿄올림픽을 상징하는 모양 위에 ‘중지다 중지’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디자인이다. 198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인기 만화 <아키라>의 낙서 장면을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한다. 업체는 지난 1월 두 번째 긴급사태가 발령된 이후 약 300장이 팔렸다고 밝혔다.

미국 언론들도 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5일(현지시각) 인터넷판 칼럼 기사를 통해 “일본 정부가 올림픽 취소를 결단해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올림픽 개최에 부정적인 일본 내 여론,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의료계 부담을 거론하며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속에서 국제적인 대형 이벤트를 치르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도 지난 4일 코로나 유행이 세계 각지에서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도쿄올림픽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스포츠 칼럼니스트 글을 실었다. <뉴욕타임스>도 지난달 18일 이번 올림픽이 일본과 전 세계의 “대형 감염 이벤트”가 될 수 있다면서 “올림픽을 어떻게 할지 재고해야 할 시기”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세 번째 긴급사태가 발령 중이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일 하루 신규 확진자는 4372명으로 나흘 연속 4천명대를 보이고 있다.

北, 월드컵도 불참 통보... 남북 스포츠교류 단절 우려

북한이 도쿄올림픽에 이어 오는 6월 한국에서 열리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예선에도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국제대회 참가를 계기로 한 남북 간 스포츠 교류 기회가 단절될 우려가 커졌다.

다만 아시아축구연맹(AFC) 측이 북한에 불참 결정 재고의 뜻을 전달한 만큼, 정부는 최종 협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북한이 AFC에 월드컵 예선 불참할 통보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AFC가 북한에 불참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아직 AFC와 북측이 협의 중으로 알고 있다, 북측 입장을 최종 확인하면 AFC가 대한축구협회에 최종 입장을 통보해줄 것으로 안다”면서 “최종 협의과정을 지켜보는 과정인 만큼 공식적인 정부 입장을 정리할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전은 기본적으로 국제대회의 추진 기준과 절차에 맞게 AFC와 대한축구협회 측의 협력이 진행돼왔던 사안”이라면서 국제대회 계기에 남북 간 스포츠 교류를 위한 정부 지원의 뜻도 재차 밝혔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로서는 국제대회가 개최되는 계기에 남북 스포츠 교류가 이뤄질 기회가 마련되면 좋은 일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AFC 중심으로 진행되는 협의 과정에 우리가 협력하고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는 입장을 가져왔고 여전히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도 북한의 국제 체육 대회 관련 입장에 대해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북한은 2018년 평창올림픽 개막을 채 두 달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참가 의사를 밝힌 바 있고, 미중일 기류 변화에 따라 극적 반전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곧 발표 예정인 미국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따른 한반도 정세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북한축구협회는 지난달 30일 AFC에 공문을 보내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불참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대한체육회, '폭행 성추행' 男 세팍타크로 감독 승인 보류 훈련비 지원 중단

협회
LIATION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대한체육회가 폭행·성추행 전력의 인물을 남자 국가대표 감독에 선임한 대한세팍타크로협회에 대해 국가대표 지도자 승인을 보류하는 한편 훈련비 지원을 중단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7일 “A씨의 세팍타크로 남자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체육회에 접수됐다”며 “A 씨의 국가대표 감독 승인을 보류했고 훈련비 지원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세팍타크로협회는 지난달 28일 남녀 국가대표 지도자 선임을 발표했다. 남자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된 A씨는 과거 폭행, 폭언, 성추행으로 불명예 퇴진했던 전력이 있던 인물이다.[MK스포츠 6일 단독 보도]

A씨는 대표팀 코치로 재직 중이던 2012년 당시 회식 중 한 선수의 부모님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은 물론 바지에 손을 넣는 성추행을 저질렀다. 피해 선수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전치 3주의 폭행 피해까지 입혔다.

피해 선수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스스로 태극마크를 반납했다. 피해 선수 소속팀에서는 대한세팍타크로협회에 진정서를 내고 A씨의 징계 등 합당한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았다. 세팍타크로협회가 A씨를 상벌위원회에 회부했지만 A씨가 자진사퇴하면서 추가 징계는 없었다. 외려 9년이 흐른 뒤 대표팀 감독에 선임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세팍타크로계 내부에서도 이번 남자 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외부인의 시선으로 보더라도 성추행·폭행 가해자가 해당 종목 최고 영예인 대표팀 사령탑으로 복귀하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故 최숙현 선수 사건 이후 체육계 내부의 폭력 근절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세팍타크로협회만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모양새다. 세팍타크로협회는 A씨 감독 선임과 관련된 MK스포츠의 질의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일단 2012년 A씨의 대표팀 코치 사퇴 과정부터 되돌아보겠다는 입장이다. A씨가 징계 없이 물러났다고 하더라도 경기력 향상위원회, 협회 이사회 등을 거쳐 사표가 수리됐을 가능성이 높을 만큼 과거 행적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세팍타크로 감독 선임 논란에 대해서는 추후 체육회 내부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gsoo@maekyung.com

소년체전 대타 종목별 대회도 '조마조마'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코로나19 여파로 종목별 대회로 대체되면서 출구를 모색했지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 대회가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대한체육회 등에 따르면 올해로 50회를 맞는 소년체전이 종목별 주관 대회로 대체되면서 종목별로 전국 각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종합대회 형태가 아닌 각 종목 협회·연맹 주관 대회로 진행할 방침이다. 소년체전은 매해 5월 중 직전 해 전국체육대회 개최지에서 열렸다. 그러나 제101회 전국체전이 감염병 확산으로 1년 순연하면서 올해 소년체전 개최 또한 자동 순연된 상태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지난달 26일 전국 남녀 중·고학생 종별 탁구대회에 참가한 중학생 선수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선수는 타 시·도 선수가 양성 판정을 받아 참가 학생들의 전수 검사를 통해 무증상 감염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달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초등학교 탁구대회가 잠정 연기되었다.

이로 인해 체육특기자 대입전형 또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지역 대학 체육특기자 전형에서는 전국 공인 대회 입상 여부에 높은 비중을 둔다. 실제 충남대 스포츠과학과와 체육교육과는 '고교 3년 이내 간 전국 대회에서 입상'을 지원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대전대는 입상 실적이 특기자 전형 선발에서 50%를 차지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 선수들과 감독들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경기일정으로 인해 선수들의 경기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 학생은 "당초 경기를 위해 소년체전 날짜에 염두에 뒤서 몸을 만들었는데 대회가 계속 미뤄지면서 경기력 조절도 어렵다. 이 때문에 스트레스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 고등학교 운동부 감독 또한 "8-9월에는 입상할 수 있는 전국대회가 마무리되어야만 학생부 전형이나, 정시 전형에 입상 이력을 쓸 수 있다. 그 이후에 입상 이력은 아무리 좋은 성적이라도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체육회 한 관계자는 "최근 레슬링 종목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다른 종목까지 대회가 취소될 수 있어 노심초사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상태"라며 "종목별 중앙협회에서도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음성 결과 확인서가 있어야만 출전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전했다. 이어 "오는 27일부터 진행되는 근대3종에 경기만이라도 출전 선수들이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원 기자

체육시민연대 소식

제1회 체육시민연대 CNet 포럼 개최

일시 : 5/14(금) 오후 4시

주제: 스포츠 학폭 논란의 고찰. 발표: 임용석(충북대 교수) & 홍덕기(경상국립대 교수)

“참여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무국으로 문의하시면 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주간 스포츠 소식

[이윤희 박사의 건강칼럼] 저 강도의 운동이 살을 빼는데 최고의 운동일까요?

<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846>

광양시, '2021 장애인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39734?ref=naver>

450석 규모 국내 첫 e스포츠전용경기장 2024년에 개장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507016001&wlog_tag3=naver

장애인스포츠 체험 '드림패럴림픽' 온라인 운영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31&NewsCode=003120210507110201751686>

경제 논리에 철저히 외면 받는 비인기 스포츠...갈 곳 잃은 대한민국 럭비인들

<http://www.asia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070>

대한장애인e스포츠 연맹, 6일부터 선수등록 시작... 체계적인 선수 관리 및 양성

http://www.maniareport.com/view.php?ud=2021050711230267915e8e941087_19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